

제 5 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한문 I)

성명  수험 번호  -

1.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교사: 조선 후기 화가 임득명이 대보름날 달구경하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구도가 독특하지요?  
 진호: 네, 그렇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리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고은: '담교놀이' 풍속을 묘사한 건가 봐요.  
 교사: 네. 대보름 밤에 다리를 밟으면 다릿병을 앓지 않는다고 생각했답니다. 임득명과 함께 활동했던 천수경은 이날의 풍경을 '달빛이 대낮처럼 밝으니 봄놀이 시작되네.'라고 읊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街橋(㉠)月'인데, '거리를 잇는 다리에서 달밤에 거닐다.'라는 뜻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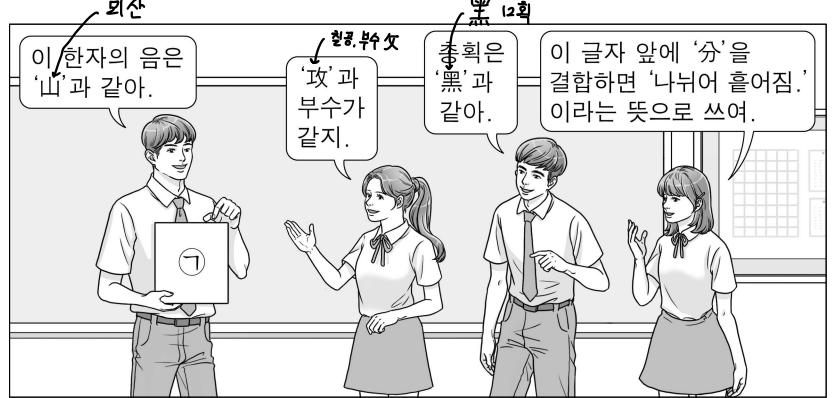
- ① 步 거닐보    ② 蜜 백백할밀    ③ 吟 읊은음    ④ 詠 읊은영    ⑤ 歲 해세

2.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기>	
ㄱ. 朋 - 友 ㄷ. 扶 - 助	ㄴ. 吉 - 凶 ㄹ. 明 - 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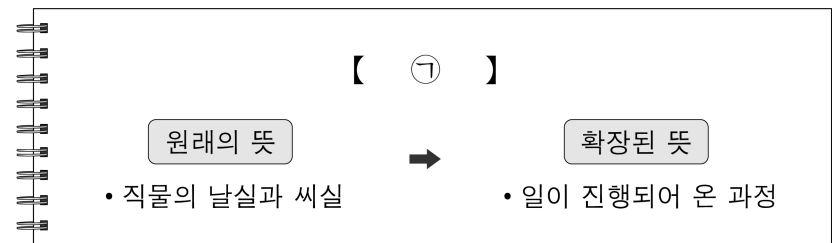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敏 민첩한민    ② 産 낳은산    ③ 散 흩어질산    ④ 算 계산산    ⑤ 敢 감히감  
 ∴ 分 背 欠 (분산)

4.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端緒 단서    ② 經緯 경위    ③ 統合 총합    ④ 綱領 망령    ⑤ 始終 시종

5.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에 들어갈 것은? [1점]

↓	風	前	燈	火
→		人		
		未		
		踏		

【가로 열쇠】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 風前燈火

【세로 열쇠】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 보지 못함. → 前人未踏

- ① 風    ② 火    ③ 達    ④ 急    ⑤ 前

6.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에는 '바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성분' 또는 '근본 성질'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뜻이 담긴 학습 용어를 알아보까요?

- ① 根 뿌리근    ② 氣 기원기    ③ 消 사라질소    ④ 素 본소    ⑤ 所 바소

7. ㉠~㉣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8.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선인태후의 종부(從父) 고준유가 군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재상(宰相) 채확이 태후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였다. 이에 태후가 “고준유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도탄에 빠뜨렸다. 선제(先帝)가 이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재상이 고준유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사형을 면한 것만도 다행이라 할 것이다. 선제의 육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개인적인 은혜를 돌아보느라 천하의 공론을 어기겠는가.”라고 하자, 채확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공평무사: 일처리를 함에 개인적인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 『회재집』 -

- ①  공평무사      ②  조변석개      ③  충언역어  
 ④  임전무퇴      ⑤  외유내강

9.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



- ①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고맙다고 하는구나.      同床異夢 (동상이몽)  
 ② 그는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동료야.  
 ③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  
 ④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네.  
 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 같아.

10.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貨 (재물)      ②  貧 (가난함)      ③ 賀 (하례할 하)      ④ 質 (무엇을 무)      ⑤ 貴 (부귀한 귀)

11.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片道 (편도)      ② 往復 (왕복)      ③ 換乘 (환승)      ④ 便乘 (편승)      ⑤ 軌道 (궤도)

12.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禮節 (예절)      ② 秩序 (질서)      ③  權利 (권리)      ④ 責任 (책임)      ⑤ 義務 (의무)

13.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속담은?

人飢三日, 無計不出. (인기삼일, 무계불출)  
 人飢三日, 無計불출 (인기삼일, 무계불출)  
 訳: 사람이 사흘 굶으면, 계책이 나오지 않는다.  
 속담: 굶주림은 가장 힘든 고생이며, 나쁜 생각도 저절로 난다.

- ①  사흘 굶으면 못할 노릇이 없다.  
 ②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  
 ③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을까.  
 ④ 사흘 길에 하루쯤 가서 열흘씩 눕는다.  
 ⑤ 사흘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곰팡이가 쓴다.

14.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 一日不念(善), 諸惡皆自起.  
하루라도 선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이 머뭇 일어났다. - 『명심보감』 -

○ 行(善)者獲福, 爲惡者得禍.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얻는 것이다. - 『중론』 -

- ① 辱    ② 善    ③ 憎    ④ 欺    ⑤ 慾

15.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  
균지는 지금 편히더라도 위험은 잊어서 안되고, 지금 온화하더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주역』 -

<보 기>

가	나	다	라	마
忘	而	存	不	亡

- ① 가 - 나 - 라 - 다 - 마      ② 가 - 라 - 마 - 나 - 다  
 ③ 다 - 나 - 라 - 가 - 마      ④ 다 - 라 - 가 - 마 - 나  
 ⑤ 마 - 나 - 라 - 가 - 다

16.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行百里者, 半於九十.  
백리쯤 가려는 자는 구십리쯤 반으로 알아야 한다.  
→ 처음보다는 마무리 단계가 중요하다. - 『전국책』 -

- 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②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③ 때로는 쉬었다 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  
 ④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⑤ 큰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해.

17.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옛 사람들은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책해서는 안 되고, 자괴감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입니다. 연평 선생이 “가슴 속에 응어리를 쌓아 놓는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중략) ... 단지 전전공공하면서 허물만 생각한다면 늘 근심 걱정에 휩싸여 끝내 이루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言工無施, 不若無言.  
 ② 聞人之過, 切勿發諸口外.  
 ③ 有餘者常譽人, 不足者常毀人.  
 ④ 有過不可不悔, 悔不可留着胸中.  
 ⑤ 與其遂欲而失人, 寧可敗事而得人.

小悔: 뉘우침 회    留着: 유력    胸中: 가슴속  
 잘못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아선 안되고, 가슴속에 남겨두지 말 것은 후회해라.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黃相國(喜) 微時, ①行役, 憩于路上, ②見田父駕二牛耕者, 問曰: “二牛何者爲勝?” 田父不對, 輟耕而③至, ④附耳細語曰: “此牛勝.” 公怪之曰: “何以附耳相語?” 田父曰: “雖畜物, 其心與人同也. 此(④)則彼劣, 使牛聞之, 寧無不平之心乎.” 公大悟, 遂不復⑤言人長短.  
 \* 憩(계): 쉬다    \* 駕(가): 멩에를 메우다    \* 輟(철): 그치다  
 \* 輟(철): 그치다    \* 輟(철): 그치다  
 마침내 나는 다른 사람의 장단을 말하지 않았다. - 『지봉유설』 -

18. ㉠~㉣ 중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 황희 정승  
 ㉢: 농부

19. ㉡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 ① 주변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② 밭일에 지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③ 소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④ 상대방의 위엄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⑤ 대답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나 농부는 ‘雖畜物, 其心與人同也’

비록 가축이긴 하나, 그 마음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  
 소가 듣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고 귀속받을 하였다.

20.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 ① 劣 못할 현    ② 負 결부    ③ 耕 밭 경    ④ 勝 뛰어보승    ⑤ 短 부족한 단

此(劣) 則彼劣  
 ↓  
 농부가 귀속받을 한 것은 한쪽 소가 전하면 다른 소는 못할 현 또는 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속받을 하였다.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 有甚①於生者. 故, 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 患有所不辟也.  
 \* 辟(피): 피하다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 『맹자』 -

21. ㉠과 쓰임이 같은 것은?

- ① 揚名(於)後世.      ② 富莫富(於)不欲.      ③ 合抱之木, 生(於)毫末.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⑤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① 후세에 이름을 올려야      ④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억지로 시켜서는 안된다.  
 ② 부유함으로는 욕망을 부리지 않는 것보다 부유한 것은 없다.      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③ 한사람되는 나무, 석에서 갈라진다.

22.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생명의 존엄성      ② 선악의 판단 기준  
 ③ 의리의 중요성      ④ 금욕적 삶의 가치  
 ⑤ 진실의 양면성

알려있는 단락: 舍生而取義者也.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여, 고금과 지우의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두터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두터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랴?** (한문 1)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人有畜野鵝者, 多與煙火之食, 鵝便體重, 不能飛. 後, 忽不食, 人以爲病, 益與之食而不食. ①旬日而體輕, 凌空而去. 翁聞之, 曰: “智哉! 善自保也.” **열흘만에 몸이 가벼워져서네,**  
\* 鵝(아): 거위 \* 凌(릉): 오르다  
- 『성호전서』 -

23. ㉠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 ① 旬 ② 日 ③ 而 ④ 體 ⑤ 輕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煙火<sup>~의</sup>之食’은 ‘불에 익힌 음식’이라는 뜻이다.○  
ㄴ. ①은 ‘收益’의 ②와 쓰임이 같다.×  
ㄷ.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에 관한 글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ㄷ. 거위가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먹어, 체중이 늘자 거리는 사람들이 먹이를 줘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 결국 몸이 가벼워져 하늘로 날아감.

[25~2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萬樹江邊杏, 新①開一夜風.  
②滿園深淺色, 照在綠波中.  
강변 살구 만그루, 하룻밤 사이에 새로 피었구나  
동산 가득 울긋불긋, 푸른물결속에 비추었다. \* 杏(행): 살구나무  
- 왕애, 「春遊曲」 -  
(나) 欲作家書③說苦辛, 恐教愁殺白頭親.  
陰山④積雪深千丈, 却⑤報今冬暖似春.  
집에 편지를 써서 괴로움을 만리라고 하도, 편머리의 부모님 매우 근심하겐가 걱정되네,  
그늘진 산에 눈 쌓인 깊이가 만리지만, 도리어 ‘올 겨울은 봄처럼 따뜻하겐가’라고 쓴다. \* 寄家書 -

25. ㉠~㉤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피다 ② ㉡: 가득하다 ③ ㉢: 말하다  
④ ㉣: 쌓이다 ⑤ ㉤: 갇다

26.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첫째 구에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쓰여져 있다. **江邊**  
② (가)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어. **深淺色**  
③ (나)의 셋째 구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군. **深千丈**  
④ (나)에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 있어. ○  
⑤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이 같아. ×  
가: 봄 (나): 겨울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人性本善, 無①古今智愚之殊. 聖人何故獨爲聖人, 我則何故獨爲②衆人耶? 良由志不立, 知不明, 行不篤耳.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豈可他求哉?  
- 『격몽요결』 -

27. ㉠과 ㉡의 뜻이 같은 것은? [1점]

- ① 東海 ② 視聽 ③ 登山 ④ 建國 ⑤ 黃金

古今: 고금 (옛날과 오늘날) 반의어.

28.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인과 마찬가지로 본성은 선하다고 했어. ○  
② 성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어. ×  
③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 ○  
④ 성인이 되려면 실천을 돈독히 해야 한다고 했어. ○  
⑤ 성인이 되기 위한 열쇠는 그 자신에게 있다고 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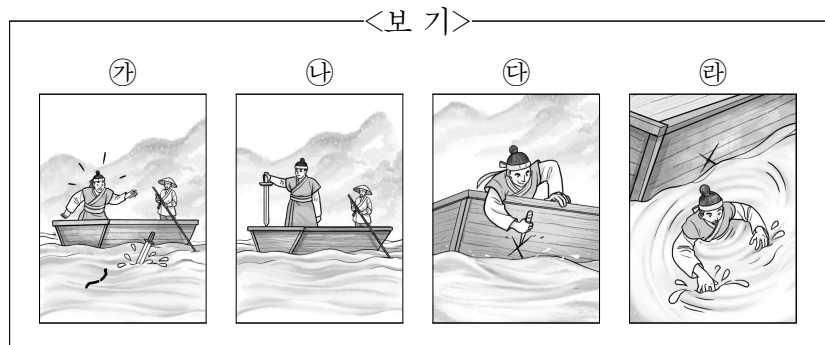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楚人, 有①涉江者, 其劍, 自舟中墜於水. 遽契其舟, 曰: “是, 吾劍之所從墜.” 舟止, 從其所契者, 入水求之.  
\* 楚(초): 나라 이름 \* 墜(추): 떨어지다 \* 遽(거): 재빨리  
- 『여씨춘추』 -

29.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渡 ② 添 ③ 汚 ④ 漁 ⑤ 活  
건넌도 더할 형 더럽혀 고기잡을 어 살활

30. 윗글의 전개에 따라 <보기>의 그림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다-라 ④ 나-가-라-다  
⑤ 나-라-가-다

초나라의 강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칼을 바위에 비벼리다 뱃전에 표시한후 허리가  
너 칼이 떨어진 곳이다' 하고 한후 칼을 찾았다.  
→ 고사성어 刻舟求劍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은 고집하는 어리석음).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